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운행과 사고가 증가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도 주행, 과속, 무단 방치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이 72.9%에 달했고, 보행 중 충돌 위험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7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93.5%는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도입에 찬성, 88.1%는 통행금지 구역 지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일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시민들의 요구와 안전을 반영한 이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